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법 실천하면 모든 문제 해소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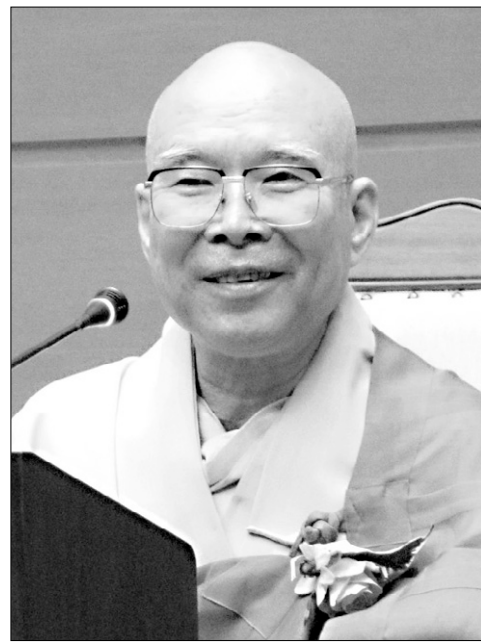
강사 :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위원장)
일시 : 2009년 11월 11일
주제 :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최 : 명상문화연구원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어느새 인간성 상실로 전에 없던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다.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인간적인 삶을 계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적 전통명상 보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자 명상문화연구원(이사장 세민, 원장 현종)이 개원했다. 명상문화연구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설립기념 고불법회를 봉행한 후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고우 스님 초청법문을 진행했다. 우리 불교의 순수한 가르침은 과연 그런 모습인가 알아보고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우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들어보자.

불교만이 연기법 실천 종교
 한국의 노자라 할 만큼 세계종교분야에서 해박한 유용오 박사라는 분이 '모든 종교는 이렇듯 다를 뿐이지 하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기독교, 알라신이 창조한 이슬람교, 중국의 도교에서도 '모든 종교는 하나에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된 종교를 전변설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다)'라고 말하니까, 유용오 씨는 '불교도 이렇듯 다르지 않은 종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됩니다. 불교는 연기설(緣起說)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변설(轉變說)이지만, 불교만이 연기설 종교입니다. 전변설 종교는 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불교만이 전쟁을 안 하

고 있습니다. 불교는 전쟁한 역사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알면, 전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상의 이데올로기·종교·종족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종교 갈등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끝내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종교전쟁입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자유, 사랑, 자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오히려 반대되는 갈등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아적이고, 저급하고, 그런 기복종교를 하는 것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자비나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면서 저급한 기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상호공존의 존재 원리
 명상을 통해서 제대로 종교역할을 해보자고 명상연구원을 만든 것이 낮은 감이 있지만 시의 적절하게 방향을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깨닫기 전에는 개인적 고민도 많았지만 깨닫고 난 후 굉장한 행복감을 느껴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사회·국가·개인 고민들을 풀어줄 방법을 발견하고 나서도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승가공동체(승단)를 만들어 깨달음의 내용을 설법하셨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의 원리'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깨치고 보니 '내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허구라는 것이죠. 불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회문제, 국가문제, 세계전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부처님 뜻이나 다른 종교창시자들이 의도했던 것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종교가 지속되면 종교가 없는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인, 국가, 사회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의 원리와 부처님이 깨달은 존재의 원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은 문제해결을 힘으로 하려합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싸우지 않습니다. 2008년 8월에도 평화적으로 범불교대회를 치렀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외도들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부처님은 외도들에게 '네가 존재의 원리를 안다면, 나를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욕을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연민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아도 불교는 깊이깊이 익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 할수록 불



‘명상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 법문 하는 고우 스님.

교는 발전할 것입니다. 유용오 씨가 불교를 제대로 알았으면 개종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돈·명예의 노예 아닌 주인으로 사는 법
 실제 불교는 매우 위대한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으로 보면 비교를 멈춘 그 자리에는 지혜가 생깁니다. 비교 안하고 잘 살 수 있는 법. 첫째가 비교입니다. 진보, 보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목표를 물으면 '돈'이 목표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 여쩔 수 없다고 말 할지는 모르지만, 돈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면 결국 자본주의의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 법 제대로 이해하면, 일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자연히 명예도 돈도 따라옵니다.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우리사회 지금 어른이 없다고 하는데 인격도 따라 옵니다. 세 번째는 자수적인 사람이 됩니다. 욕망에 이끌려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죠. 네 번째는 우리사회의 화두인 일방소통이 아니라 쌍방소통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

대가 왔습니다. 특히 종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모두가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레도 강한 나라에서 나왔으니 파급력이 클 것이라 봅니다. 그런 세상 누가 만드나 고민하다 신문과 책을 통해서 보니 그분이 적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처님 말씀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또렷하게 연기된 현상 관해야
 부처님은 '존재원리'를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 즉, 보는 것은 부처님과 우리의 작용이 같습니다. 우리는 세가지 중 하나만 하고 있고 두 가지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 두 개를 발견하면 우리 의식이 그렇게 변해 우리 가족, 사회,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연기설'입니다.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집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재료를 부합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그 재료를 역시 여러 물질이 조합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고정불변 된 존재가 아니에요. 연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고정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일로 독립된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 원리를 2600년 전에 깨달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 억 만개의 원자 덩어리가 여러 번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믿겠습니까? 이것은 현대물리학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인만의 물리학의> 책에도 나와 있고 말입니다. 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 할수록 불교는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일화된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 속에 또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 돼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체가 없어서 무아(無我)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열반적정(涅槃寂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중국의 운문 스님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좋은날을 산다고 했습니다. 전변설 종교는 명상이라고 하는데, 불교명상은 '삼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성성적정(惺惺寂寂)'해야 합니다. 연기설 종교는 불교 단 하나입니다. 삼매를 통해 자기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갖추면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 명상은 다른종교와는 다릅니다. 불교의 명상은 성성적적이 돼야 합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 할수록 불교는 발전

개인·국가·사회에 도움 되는 종교로 돌아가야



고우 스님의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하는 불교명상 법문을 듣고있는 사부대중.

불자 정보 758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화곡역1분거리 변화가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평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명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정통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2억5천만원 011-452-8374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8천만원 ● 절 사신분에게는 2천만원을 불사하겠습니다 011-540-3313	사찰 안내 ● 위치: 경주, 언양 (인접) 부근 ● 매우발전적 사찰 운영 중심 ● 가액: 2억 정도(절충가) 017-559-8904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임법당 ● 삼존불, 냉난방, 완벽 설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실비 상의 타사찰 소임으로 급 양도 018-622-9865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시내 중심지 위치 ● 법당, 요사채 2동 ● 대지 90여평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 비구니 스님 포교 활동 적합함 010-3958-550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서면 부산시장부근 ● 최고시설, 최고의 요지 ● 3층건물에 3층 ● 평수: 2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약간 010-7769-7773	절터 안내 ● 위치: 경북 영주 순흥면 ● 명당터 ● 약 1,000평, 토목공사 완 ● 수도전기 완, 건축허가 완 ● 컨테이너 1동 ● 가액: 1억 5천만원(가액절충가능) 010-3697-2290
토굴 안내 ● 위치: 전남 담양읍 부용리702번지 ● 집터 31평 ● 방 3개, 수세식 화장실 ● 가액: 1,800만원 010-3541-2314	포교원 안내 ● 위치: 의왕시 내손동 평촌 롯데마트앞 ● 안양 평촌요지 교통편리 ● 평수 45평, 5층 ●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031)426-0555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소월읍읍내 ● 평수: 약 800평 ● 법당(5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8평, 주차장 넓음 ●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31)764-0180 010-2747-9791	사찰 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차반 약사여래불 ● 가액: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암자(급)안내 ● 위치: 전남함평군 월아면 예덕리 ●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종각 ● 요사채, 화장실 1동 ● 평수: 344평, 건물허가 ● 실사용 1천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061)322-1961 011-491-5086

사찰 대출 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출장비, 소개수수료, 대출꺼기가 일체 없습니다.

- 대출지역: 전국
- 대출형식: 담보대출
- 대출금액: 5천만 ~ 5억
- 대출금리: 연 7.2%~8.2%
- 대출기간: 5년(연장가능)



죽도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 담당직종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 본점 054)282-9600
- 제1지점 054)282-9601
- 제2지점 054)282-9602